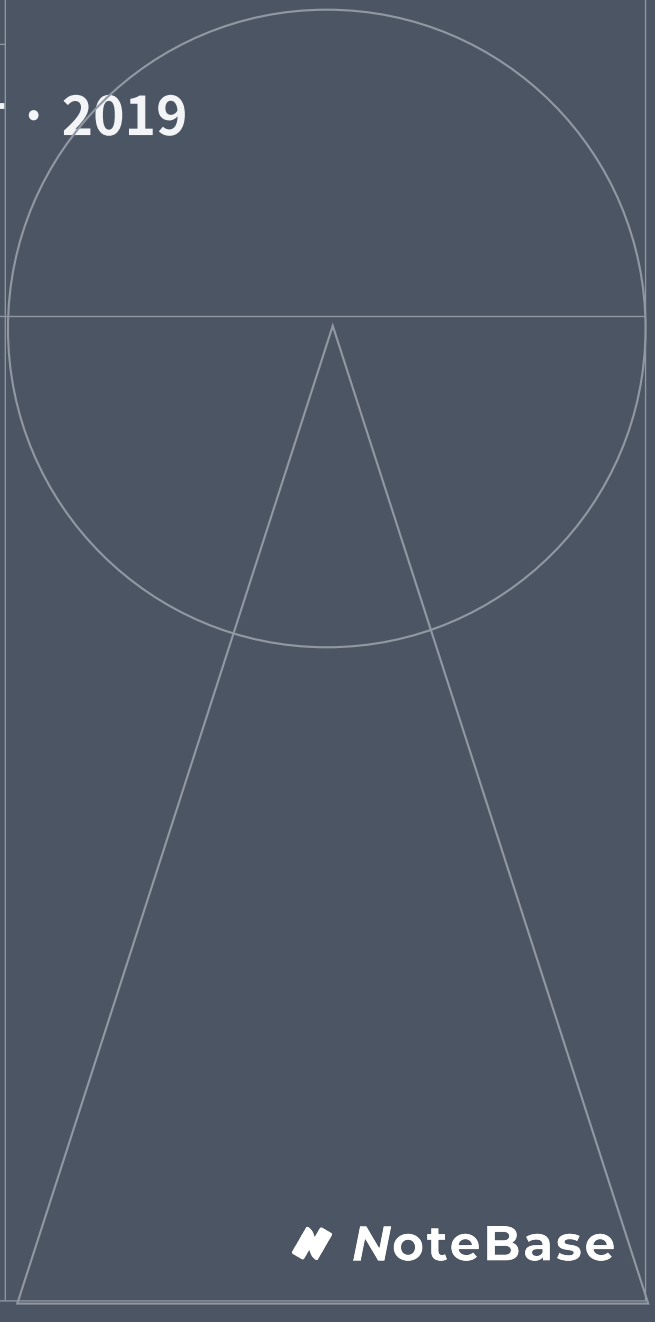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9

문 1. 종교개혁기의 서양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였다.

② 교육에서 현세의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였다.

③ 성서 읽기를 위한 기본 문해교육이 강조되었다.

④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이 발달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교개혁기 교육의 핵심 성격과 중세 교회교육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교개혁기 교육은 신자가 성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도록 기초 문해력과 보통교육을 중시한 교육이다.
중세 교회교육은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 수도원적 금욕, 스콜라 철학 중심의 대학교육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기를 묻는데 교회 중심성, 금욕주의, 스콜라 철학이 나오면 중세적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 강화는 중세 교회교육의 성격에 가깝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독점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신앙과 성서 접근을 중시하였다. 틀린 표현은 "교회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성서 중심의 신앙교육과 개인의 직접적 성서 이해를 중시하였다"이다.

② X
현세의 고행과 금욕 강조는 수도원 중심의 중세 금욕주의와 연결된다. 종교개혁은 수도원적 금욕보다 세속 직업과 일상생활 속의 신앙 실천을 더 중시하였다. 틀린 표현은 "고행과 금욕"이다. 올바르게는 "일상생활 속 신앙과 직업생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이다.

③ O
종교개혁기에는 신자가 성서를 직접 읽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해지면서 읽기, 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이 중요해졌다. 성서 읽기를 위한 보통교육 확대라는 점에서 옳다.

④ X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의 발달은 중세 대학의 대표적 특징이다. 종교개혁기의 대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육"이다. 올바르게는 "성서 읽기와 신앙교육을 위한 초등 수준의 보통교육이 강조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 ②, ④는 모두 중세 교회교육의 특징을 종교개혁기에 끼워 넣은 선지이다. 특히 ④의 스콜라 철학과 ②의 금욕주의는 역사교육사에서 중세를 대표하는 단어여서 시대 구분이 흔들리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교개혁기 선지는 먼저 성서의 직접 읽기, 보통교육, 문해력 강조가 있는지를 본다. 반대로 교회 중심성, 수도원 금욕, 스콜라 철학이 보이면 중세 교육의 특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종교개혁은 성서 읽기, 중세는 교회·금욕·스콜라이다.

NoteBase

문 2.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용을 위한 공부와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③ 신분의 구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천자문』, 『사략』, 『통감』 등의 교재로 아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교육관을 전통적 서당식 교육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실학자들의 교육관은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신분 질서 완화와 연결된 교육 확대를 중시한다. 반대로 전통적 서당 교육은 한문 고전과 아동 입문서를 반복 암송하는 방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실학은 공리공담보다 현실에 쓸모 있는 학문을 중시하였으므로 실용을 위한 공부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맞다.
2번 O: 조선 후기 실학은 국학의 성장과 이어지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진술은 맞다.
3번 O: 실학자들은 신분 질서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보다 넓은 계층에 배움의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은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천자문』, 『사략』, 『통감』 등의 교재로 아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천자문』, 『사략』, 『통감』은 서당에서 한자와 역사 지식을 암송으로 익히게 하던 전통적 입문 교재로, 실학자들이 오히려 그 비효율성과 형식성을 비판한 대상이었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기존 교재를 그대로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수준과 실제 생활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아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은 실학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아동교육을 내실화'라는 표현 때문에 개혁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수단을 『천자문』, 『사략』, 『통감』 같은 전통 입문 교재 중심으로 잡았다는 점이 실학의 방향과 어긋난다. 실학은 낡은 암기식 교재 중심 교육을 비판한 흐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학 관련 선지는 실용성, 국학, 현실 개혁, 교육 기회 확대의 키워드가 보이면 맞는 방향으로 본다. 반대로 과거 준비용 한문 암기, 형식주의, 기존 교재의 답습이 강조되면 실학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학 교육관은 실용·국학·교육 확대이고, 비실학적 교육관은 한문 암기·형식주의 중심이다.

NoteBase

문 3. 신인문주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 본성의 미적, 지적 차원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② 국민국가의 민족적 관점에서 전통과 유산을 중요한 교육소재로 삼았다.

③ 고전 연구와 교육을 위해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

④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계몽주의에 맞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신인문주의의 핵심 성격을 이해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학교 전통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신인문주의는 고전 연구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인격을 조화롭게 형성하려는 교육사조이다.
실용성과 공리성을 앞세운 계몽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미적·지적 도야와 교양 형성을 중시하였다.
독일의 김나지움은 신인문주의와 연결되지만, 이탈리아의 궁정학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간 본성의 미적·지적 차원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려는 것은 신인문주의의 핵심이다. 신인문주의는 지식의 유용성보다 전인적 교양과 인격 형성을 더 중시하였다.

② O
신인문주의는 국민국가 형성기의 흐름 속에서 전통과 유산, 민족 문화를 교육적으로 중시하였다. 전통과 유산을 통해 인간 형성과 문화 계승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탈리아의 궁정학교와 독일의 김나지움 같은 학교가 생겨났다'는 연결이다. 이탈리아의 궁정학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과 연결되며, 신인문주의의 대표적 학교 전통은 독일의 김나지움이다.
올바르게는 '고전 연구와 교양 교육을 위해 독일의 김나지움이 중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신인문주의는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계몽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하였다. 학교교육 전반을 인간 형성 중심으로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고전 연구', '김나지움'처럼 신인문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 옆에 '이탈리아의 궁정학교'를 끼워 넣어 르네상스 인문주의 요소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시대와 지역이 다른 학교 전통을 한 문장에 묶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문주의 계열 문항은 먼저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신인문주의를 분리해서 본다. 이탈리아 궁정학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독일 김나지움과 교양 형성은 신인문주의로 연결하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암기 포인트

이탈리아 궁정학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독일 김나지움과 교양 형성은 신인문주의이다.

NoteBase

문 4.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유형: 구성 정책, 사례: 사립학교 설립 인가

② 유형: 규제 정책, 사례: 두뇌한국(BK)21 사업

③ 유형: 배분 정책, 사례: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

④ 유형: 재분배 정책, 사례: 취약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집중 설립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로위의 정책 유형을 정책의 작동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특히 규제·배분·재분배·구성 정책의 차이를 사례에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제 정책은 허가·인가·금지처럼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이다.
배분 정책은 특정 개인·집단·기관에 예산이나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에 자원과 기회를 더 배정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구성 정책은 정부조직과 제도 운영의 틀, 권한, 절차, 법적 구조를 정하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구성 정책'이다. 사립학교 설립 인가는 학교 설립 행위를 허가·통제하는 내용이므로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규제 정책'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은 특정 대학원과 연구집단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배분 정책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배분 정책'이다.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는 교육행정의 제도와 운영 틀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④ O. 취약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집중 설립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더 많은 교육기회를 배정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지원이 들어가면 모두 재분배라고 보거나, 법령 정비가 들어가면 모두 규제라고 보는 혼동이 자주 나온다.
BK21처럼 특정 기관에 자원을 주는 것은 배분 정책이고, 취약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더 주는 것은 재분배 정책이다. 또한 인가 여부는 규제, 제도 틀을 정비하는 법령은 구성으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를 보면 먼저 '행위를 허용·제한하는가, 자원을 나누어 주는가, 불평등을 줄이려고 더 옮겨 주는가, 제도 틀 자체를 정하는가'를 순서대로 본다. 허가·인가이면 규제, 선택적 지원이면 배분, 격차 완화 목적이면 재분배, 조직·법령 틀 정비이면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인가·제한은 규제, 선택 지원은 배분, 격차 완화는 재분배, 제도 틀 정비는 구성이다.

NoteBase

문 5. 현대사회의 학력 상승 원인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기능이론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② 학습욕구이론의 강점은 오늘날의 학교가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는 데 있다.

③ 지위경쟁이론에서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탓에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④ 국민통합이론은 정치단위인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 과정에서 교육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대사회의 학력 상승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들의 핵심 논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기술기능이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업세계가 고도화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교육이 팽창한다고 본다.
학습욕구이론: 인간의 지적 성장, 자아실현, 교양 추구 같은 학습 욕구가 커지면서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지위경쟁이론: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므로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 교육 팽창을 낳는다고 본다.
국민통합이론: 교육이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내면화시켜 사회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수행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기능이론은 과학기술 발달이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낳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진술은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강점은 오늘날의 학교가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이다. 학습욕구이론은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의 학교가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한 이론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학습욕구이론은 학습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학교가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다.

③ O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을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경쟁적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학력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고 설명한다.

④ O
국민통합이론은 교육제도가 국가의 이념과 가치관을 전달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부각했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학습욕구이론은 이름 때문에 학교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직접 입증하는 이론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이론의 초점은 학교의 성과 입증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배우려 하는가에 있으므로, ②처럼 이론의 설명 대상을 학교의 실제 충족 기능으로 바꾸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력 상승 이론은 원인을 무엇에서 찾는지로 구분하면 된다. 기술 변화이면 기술기능이론, 학습 자체의 욕구이면 학습욕구이론, 사회적 선점 경쟁이면 지위경쟁이론, 국가 이념과 통합 기능이면 국민통합이론이다.

암기 포인트

기술기능은 직업기술, 학습욕구는 배우려는 욕구, 지위경쟁은 학벌 경쟁, 국민통합은 국가 이념 통합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관점은?

◯ 관료제적 조직보다는 관련자의 능력과 자율이 보장되는 전문직 조직에 더 적합하다.
◯ 소규모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 산하 전문가 집단의 결정 행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문가의 식견에 대한 신뢰 등이 전제되고 있다.

① 참여적 관점
② 정치적 관점
③ 우연적 관점
④ 합리적 관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행정의 의사결정 관점 가운데 참여적 관점과 정치적·우연적·합리적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참여적 관점은 조직 구성원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정 차이축은 공유된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이다. 키워드는 전문직 조직, 자율, 참여이다.
정치적 관점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권력과 협상을 통해 결정을 만든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정 차이축은 갈등과 권력관계이다. 키워드는 연합, 협상, 타협이다.
우연적 관점은 목표와 절차가 불분명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정 차이축은 조직화된 무질서와 우연한 결합이다. 키워드는 불명확성, 유동적 참여, 쓰레기통 모형이다.
합리적 관점은 목표가 분명하고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정 차이축은 명확한 목표와 분석적 최적화이다. 키워드는 목표의 명료성, 대안 비교, 최적 선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관료제보다 전문직 조직에 적합하고, 전문가 집단의 결정행위를 설명하며, 공통의 가치와 전문가 판단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는 구성원의 전문성·자율성·공유가치를 중시하는 참여적 관점의 전형적 설명이다.
② X: 정치적 관점은 공통의 가치와 전문가 식견에 대한 신뢰보다 이해관계의 충돌, 권력 배분, 협상 과정을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설명을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권력과 타협을 중심으로 보면 정치적 관점이고, 제시문은 참여적 관점이다.
③ X: 우연적 관점은 소규모 전문조직의 합의보다 목표의 불명확성, 절차의 모호성, 참여의 유동성을 전제로 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설명을 우연적 관점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문제·해결책·참여자가 우연히 결합하는 상황일 때 우연적 관점이다.
④ X: 합리적 관점은 공통가치와 전문가 신뢰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최적 대안 선택의 절차를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이 설명을 합리적 관점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분석적 절차와 최적화가 강조될 때 합리적 관점이고, 제시문은 참여적 관점이다.

오답 포인트

전문가가 등장하면 합리적 관점으로, 집단이 등장하면 정치적 관점으로 기계적으로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전문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전문가의 자율성과 공동가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서 공유된 가치, 전문성, 자율성, 참여가 보이면 참여적 관점을 먼저 본다. 권력·협상은 정치적 관점, 불명확성과 우연한 결합은 우연적 관점, 목표·대안·최적화는 합리적 관점으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참여적 관점은 전문성·자율성·공유가치, 정치적 관점은 권력·협상, 우연적 관점은 불명확성·유동성, 합리적 관점은 목표·최적화이다.

NoteBase

문 7. 갑오·광무 교육개혁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 근대교육의 성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립학교령의 제정·공포

② 한성사범학교 관제의 공포·시행

③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설립

④ 외국어와 신학문 교육을 위한 육영공원의 설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갑오·광무 교육개혁기의 교육 제도 정비 성과와 그 이전 개화기 교육기관, 그리고 그 이후 일제 통제 법령을 시기로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오·광무 교육개혁기는 1894년 이후 근대적 학교제도와 교원양성 제도를 정비한 시기이다. 한성사범학교 관제는 이 시기 교원양성 제도 정비의 대표 사례이다. 육영공원과 이화학당은 갑오개혁 이전 개화기 교육기관이고, 사립학교령은 훨씬 뒤의 일제 사학 통제 법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립학교령의 제정·공포가 틀린 표현이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 통감부 시기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므로 갑오·광무 교육개혁기의 성과가 아니다. 갑오·광무기 성과로는 근대 학교제도와 교원양성 제도의 정비가 와야 한다.

② O
한성사범학교 관제의 공포·시행은 1895년 교원양성 제도를 제도화한 조치로, 갑오·광무 교육개혁기의 대표적 성과이다.

③ X
이화학당의 설립이 틀린 표현이다. 이화학당은 1886년 설립된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갑오·광무 교육개혁 이전 개화기 교육기관이다. 갑오·광무기의 성과로 고치면 여성교육기관의 최초 설립이 아니라 근대 학교제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④ X
육영공원의 설립이 틀린 표현이다. 육영공원은 1886년 외국어와 신학문 교육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갑오·광무 교육개혁 이전 개화기의 사업이다. 갑오·광무기의 성과로 고치면 한성사범학교 설치와 같은 관학 체제 정비가 맞다.

오답 포인트

육영공원과 이화학당처럼 개화기 초기에 이미 설립된 기관을 갑오·광무 교육개혁의 성과로 착각하기 쉽다. 또 사립학교령처럼 근대교육 관련 용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시기에 묶으면 시기 함정에 걸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기관명이나 법령명이 나오면 먼저 시기를 자른다. 1886년의 육영공원·이화학당은 갑오개혁 이전이고, 1908년 사립학교령은 일제 통제기이며,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처럼 교원양성 제도 정비가 갑오·광무 교육개혁기의 핵심 성과이다.

암기 포인트

육영공원·이화학당은 1886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는 1895년, 사립학교령은 1908년으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8.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설치 주체, 대상, 인가·등록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학교형태는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는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 부설은 고객 대상이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교처럼 운영되지만 정규학교와는 구별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이 종업원 등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학력·학위 인정형 평생교육시설이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핵심 구분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각급학교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한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대상이 해당 사업장 종업원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학교가 아니라 각급학교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장도 별도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대학을 제외한'
- 올바른 표현: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X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시설이 아니다.
- 틀린 표현: '교육부장관에게 등록'
- 올바른 표현: '교육감에게 등록'

③ X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만이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과 하도급·협력업체 종업원 등도 포함된다.
- 틀린 표현: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 올바른 표현: '해당 사업장 종업원 외에 다른 업체 종업원, 하도급·협력업체 종업원 등도 대상으로 한다.'

④ O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부설 시설은 고객 대상이라는 점이 사내대학형태와 구별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는 고객 대상이고 후자는 종업원 등 대상이며, 학교형태는 교육감 등록이라는 점을 한 묶음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생교육시설 문제는 먼저 시설 유형을 잡고, 다음으로 설치 주체, 교육 대상, 인가·등록 기관을 대응시켜 판단한다. 교육감 등록이면 학교형태, 교육부장관 인가이면 사내대학형태, 고객 대상이면 사업장 부설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학교형태는 교육감 등록, 사내대학형태는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 부설은 고객 대상이다.

NoteBase

문 9.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②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중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거나 재량으로만 가능한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임용권자에게 강행적으로 휴직 명령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하여야 하고, 제7호·제7호의2·제7호의3은 본인이 원하면 명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같은 항 단서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2번: X.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는 제5호 사유이다. 제5호는 단서의 강제휴직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올바르게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3번: X.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의 자기개발 학습·연구는 제12호 사유이다. 이 역시 단서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올바르게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4번: X.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 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은 제7호 사유이다. 제7호는 단서에서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 신청형 의무휴직일 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명하는 휴직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이고, 올바르게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오답 포인트

④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명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만 보고 ①과 같은 강제휴직으로 보면 틀린다. ④는 신청이 있을 때만 의무가 생기고, ①은 신청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선지가 제44조 제1항 몇 호 사유인지 대응시킨다. 그다음 단서에서 1호부터 4호까지·11호는 강제휴직, 7호·7호의2·7호의3은 신청 시 의무휴직, 나머지는 재량휴직으로 나누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1~4·11은 본인 의사 불문, 7·7의2·7의3은 신청 시 의무, 나머지는 재량이다.

NoteBase

문 10.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는 학교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성화중학교
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ㄷ.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율학교 대상을 열거형으로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율학교 =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은 자율학교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한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특성화중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농어촌 관련 특별법상 농어촌학교가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은 모두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자율학교 대상이 맞지만, ㄷ과 ㄹ도 함께 포함되므로 일부만 고른 선택지이다.
-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

② X
- ㄷ과 ㄹ은 자율학교 대상이 맞지만, ㄱ과 ㄴ도 포함되므로 역시 일부만 고른 선택지이다.
- 틀린 표현: ㄷ, ㄹ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

③ X
- ㄱ, ㄴ, ㄷ은 모두 맞지만, ㄹ인 농어촌 관련 특별법상 농어촌학교도 자율학교 대상이므로 하나가 빠졌다.
- 틀린 표현: ㄱ, ㄴ, ㄷ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

④ O
- ㄱ의 특성화중학교, ㄴ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ㄷ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ㄹ의 농어촌 관련 특별법상 농어촌학교는 모두 시행령상 자율학교 대상이다.
-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이를 전부 묶은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율학교 대상을 부분적으로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학습부진아 교육 학교나 농어촌학교를 예외적 사례로 보고 빼기 쉽지만, 시행령은 이들도 자율학교 대상에 포함하여 열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열거 문제는 각 진술의 독립적 진위를 먼저 확인한 뒤, 마지막에 조합형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하나라도 제외 근거가 없으면 전부 포함 선택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자율학교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산업수요 맞춤형·특성화고, 학습부진아 교육 학교, 농어촌학교까지 넓게 포함된다고 정리한다.

NoteBase

문 11. 교수설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켈러(Keller) - 학습자의 내적 학습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외적 상황을 9가지로 제시하였다.

② 메릴(Merrill) - 복잡한 학습내용을 수행-내용 매트릭스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기초하여 교수전략을 개발하였다.

③ 라이겔루스(Reigeluth) - 인지과학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행역량중심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가네(Gagné) -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인들을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세분화하여 동기설계의 전략을 제공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수설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와 그 대표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켈러(Keller): ARCS 동기설계모형 — 학습동기를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나누어 동기 유발 전략을 제시한 학자이다.
메릴(Merrill): 내용-수행 매트릭스 — 학습내용을 내용 차원과 수행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수전략을 설계한 학자이다.
라이겔루스(Reigeluth): 정교화이론 — 복잡한 내용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차 정교화하여 조직하는 원리를 제시한 학자이다.
가네(Gagné): 9가지 수업사태 — 학습의 내적 과정을 촉진하는 외적 수업사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학습자의 내적 학습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외적 상황을 9가지로 제시'한 것은 켈러가 아니라 가네이다. 틀린 표현은 '켈러'이다. 올바르게는 '가네는 학습의 내적 과정을 촉진하는 9가지 수업사태를 제시하였다'이다.
② O: 메릴은 복잡한 학습내용을 수행-내용 매트릭스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맞는 교수전략을 개발하였다. 메릴의 대표 연결고리는 내용 차원과 수행 차원을 결합한 교수설계 모형이라는 점이다.
③ X: 라이겔루스의 대표 모형은 수행역량중심 모형이 아니라 정교화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인지과학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행역량중심 모형'이다. 올바르게는 '라이겔루스는 내용을 거시적으로 조직하는 정교화이론을 제안하였다'이다.
④ X: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동기설계 전략을 제시한 것은 가네가 아니라 켈러이다. 틀린 표현은 '가네'이다. 올바르게는 '켈러는 ARCS 모형으로 동기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와 켈러의 ARCS 모형이 모두 교수설계 장면에서 자주 함께 다뤄져 학자 이름이 뒤바뀌기 쉽다. 또한 메릴의 내용-수행 매트릭스와 라이겔루스의 정교화이론은 모두 내용 조직과 교수전략을 다루므로, '매트릭스'와 '정교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③에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매칭 문제는 문장 전체를 외우기보다 학자명과 대표 손잡이를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가네는 9가지 수업사태, 켈러는 ARCS, 메릴은 내용-수행 매트릭스, 라이겔루스는 정교화이론으로 잡으면 대부분의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네=9가지 수업사태, 켈러=ARCS, 메릴=내용-수행 매트릭스, 라이겔루스=정교화이론이다.

NoteBase

문 12.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델링, 코칭, 비계설정, 명확한 표현, 반성적 사고 등이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②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③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실제성이 강조되어 활동의 의미가 더 커진다.

④ 비구조적 문제를 특징으로 하며, 학습자가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하며 전략을 찾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제중심학습의 핵심 특징과 인지적 도제의 교수 방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문제중심학습은 실제적이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며 해결 전략을 구성하는 학습이다. 인지적 도제는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모델링, 코칭, 비계설정, 명확한 표현, 반성적 사고 등을 활용하는 교수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모델링, 코칭, 비계설정, 명확한 표현, 반성적 사고 등이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는 문제중심학습이 아니라 인지적 도제의 대표적 교수 방법이다. 문제중심학습은 실제적 문제 제시, 자기주도 탐구, 협동적 해결 과정이 중심이다.
② O: 문제중심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적용하면서 학습 방법 자체를 익히게 된다.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력이 함께 강조된다.
③ O: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다루므로 실제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학습 활동의 맥락과 의미가 커지고 전이 가능성도 높아진다.
④ O: 문제중심학습은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은 비구조적 문제를 주로 다룬다. 학습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가설과 해결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심화한다.

오답 포인트

문제중심학습과 인지적 도제는 모두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섞인다. 특히 ①처럼 모델링·코칭·비계설정이 나오면 문제중심학습이 아니라 인지적 도제의 신호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실제적 문제, 비구조적 문제, 자기주도 탐구, 협동적 해결이 나오면 문제중심학습 쪽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모델링, 코칭, 비계설정, 명확한 표현, 반성처럼 전문가 수행을 드러내는 절차가 나오면 인지적 도제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PBL은 실제 문제 해결, 인지적 도제는 모델링·코칭·비계설정이다.

NoteBase

문 13. 발달이론을 제안한 학자와 그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릭슨(Erickson) - 각 발달단계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격발달이 이루어진다.

② 콜버그(Kohlberg) -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인지발달 수준과 병행한다.

③ 비고츠키(Vygotsky) -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④ 피아제(Piaget) - 자기중심적 언어는 단순히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달이론을 제안한 학자와 그 대표 관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 문항이다.

핵심 정리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 각 발달단계마다 위기가 있으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격발달에 영향을 준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이론 — 도덕 판단은 인지발달을 토대로 더 높은 단계로 발달한다.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이론 — 혼자 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 근접발달영역이 존재한다.
피아제: 인지발달이론 —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보며, 문제해결 도구로서의 사적 언어 강조는 비고츠키의 관점에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에릭슨은 각 생애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시하고, 그 위기의 해결 양상이 자아와 성격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선지의 연결이 맞다.

② O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이 인지발달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본다. 인지적 성숙이 있어야 더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이 가능하므로 선지의 진술은 타당하다.

③ O
비고츠키는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차이를 근접발달영역으로 본다. 선지는 이를 정확히 설명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피아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의 연결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로서 언어를 강조한 것은 비고츠키의 사적 언어 관점이다.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표현으로 보아 점차 사회화된 언어로 바뀐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자기중심적 언어'라는 용어 때문에 피아제 이론처럼 보이지만, 뒤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도구'라는 설명은 비고츠키의 사적 언어 기능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용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학자와 기능을 잘못 연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이론 매칭 문제는 이름보다 대표 개념의 기능을 먼저 연결해서 판단한다. 에릭슨은 위기 해결, 콜버그는 도덕성 단계, 비고츠키는 근접발달영역과 사적 언어, 피아제는 인지단계와 자기중심성으로 묶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피아제는 자기중심성, 비고츠키는 사적 언어와 근접발달영역으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4. 교육현상과 관련하여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X가 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나야 한다.

② X가 변화하면 Y도 같이 변화해야 한다.

③ X와 Y 모두 연속변수로서 측정의 엄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Y의 변화가 제3의 변수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기본 조건인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외생변수 통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과관계는 X가 Y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이다.
시간적 선행성은 원인인 X가 결과인 Y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공변성은 X가 달라질 때 Y도 함께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외생변수 통제는 Y의 변화가 제3의 변수 때문이라는 다른 설명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변수가 연속변수인지 여부나 측정의 엄밀성은 연구의 정밀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인과관계 성립의 필수조건 자체는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X가 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핵심 조건인 시간적 선행성에 해당한다.

② O
X가 변할 때 Y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은 공변성의 조건을 말한다.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 변수 사이에 체계적인 변화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X와 Y 모두 연속변수로서"와 "측정의 엄밀성"이 인과관계 성립 조건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변수의 측정 수준이 연속형일 필요는 없고, 명목변수나 범주변수도 연구 설계에 따라 인과관계 검토가 가능하다. 올바르게는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외생변수 통제가 인과관계의 조건이다.

④ O
Y의 변화가 제3의 변수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대안적 설명의 배제, 즉 외생변수 통제 조건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연구의 엄밀성과 인과관계의 성립조건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측정이 정교하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인과관계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과관계 조건을 묻는 문항은 먼저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외생변수 통제의 세 가지를 떠올리면 된다. 선지에 변수의 형태, 측정 도구의 정밀성, 표본의 크기 같은 연구 일반 조건이 나오면 인과조건인지 별도로 구분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과관계 3조건은 선행, 공변, 통제이다.

NoteBase

문 15. 원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양한 기술적 매체들에 의존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②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전에 계획, 준비, 조직된 교재로 개별학습이 이루어진다.

③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에 비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하게 되므로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④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격교육의 핵심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다양한 매체와 사전에 설계된 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형태이다.
원격교육의 강점은 접근성 확대와 개별화 학습 지원에 있고, 약점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부담이 커서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양한 기술적 매체를 활용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격교육의 대표적 특징이다.

② O
원격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더라도 수업자료를 사전에 계획·준비·조직해 두고, 학습자는 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표현이다.
원격교육은 자기주도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대면 통제가 약하므로 중도탈락률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원격교육은 자기조절 실패나 고립감 등으로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이다.

④ O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장점만 강조한 뒤 이를 곧바로 "중도탈락률이 낮다"로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원격교육은 자기주도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제 이수 지속성이 높다는 점이 같은 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격교육 문제는 매체 활용, 시공간 분리, 사전 설계된 자료, 접근성 확대는 장점으로 보고, 학습 지속의 어려움과 중도탈락 가능성은 약점으로 구분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원격교육은 접근성은 넓히고, 탈락위험은 낮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6. 다음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수강 중인 과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측정치 사이의 크기 또는 간격이 동일한 척도로, 절대영점을 갖고 있다.

② 측정대상을 상호배타적 범주로 분류하는 측정치로, 수치의 의미가 질적 구분만 가능하다.

③ 분류, 순위, 등간성을 갖고 있는 측정치로, 가감승제가 자유로운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이다.

④ 순위 또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정치로, 측정치가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척도는 대상을 범주로만 구분하는 척도이다.
서열척도는 대상의 순위만 알 수 있고 각 순위 사이 간격은 알 수 없는 척도이다.
등간척도는 순위와 등간성이 있어 점수 차이는 비교할 수 있지만 절대영점이 없는 척도이다.
비율척도는 순위와 등간성에 더해 절대영점이 있어 비율 비교와 사칙연산이 가능한 척도이다.
제시된 만족도 응답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순서만 나타내므로 서열척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선지는 측정치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고 절대영점까지 갖춘 척도, 즉 비율척도를 설명한 것이다. 간격의 동일성만 있으면 등간척도의 특성이고, 여기에 절대영점이 더해져야 비율척도가 된다. 제시된 만족도 문항은 순서 정보만 담은 서열척도이므로, 절대영점을 전제한 이 설명은 제시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② X: 이 선지는 측정대상을 상호배타적 범주로 분류하고 수치가 질적 구분만 가능한 척도, 즉 명목척도를 설명한 것이다. 제시된 만족도 문항은 질적 구분을 넘어 높고 낮은 순위까지 나타내는 서열척도이므로, 순위 정보를 담지 못하는 이 설명은 제시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③ X: 이 선지는 분류, 순위, 등간성을 모두 갖추고 가감승제가 자유로운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 즉 비율척도를 설명한 것이다. 제시된 만족도 문항은 순위 정보만 있고 등간성이나 사칙연산이 보장되지 않는 서열척도이므로, 최고 수준의 측정으로 서술한 이 설명은 제시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④ O: 서열척도는 순위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는 주지만 절대량의 크기나 동일한 간격 정보는 주지 않는다. 만족도를 1에서 5로 표시해도 각 단계 사이 간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제시된 서열척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숫자가 붙어 있으면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의 1점부터 5점까지는 크기 차이를 정밀하게 잰 값이 아니라 만족도의 순서를 표시한 부호이므로 서열척도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척도 문제는 먼저 그 숫자가 단순한 이름인지, 순위만 나타내는지, 간격까지 같은지, 절대영점까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순위만 있고 간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면 서열척도이다.

암기 포인트

명목은 분류, 서열은 순위, 등간은 간격, 비율은 절대영점까지 갖춘다.

NoteBase

문 17. 학습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묶기(chunking) - 많은 작은 정보를 몇 개의 큰 묶음으로 처리함으로써 파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② 심상(imagery) -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전략으로, 개념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다.

③ 정교화(elaboration) -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이다.

④ 조직화(organization) -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요 작성과 개념도가 있으며, 개념도는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습전략인 묶기, 심상, 정교화, 조직화의 정의와 구별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묶기는 여러 개의 작은 정보를 더 큰 단위로 재부호화하여 작업기억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심상은 언어 정보나 개념을 시각적 표상으로 바꾸어 기억을 돕는 전략이다.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의미 있게 연결하고 예시, 유추, 자신의 말로 풀어 설명하면서 의미를 덧붙이는 전략이다.
조직화는 정보를 공통 범주, 위계, 유형에 따라 배열하여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며 개요나 개념도가 대표적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19

선지별 해설

① O
묶기는 여러 낱정보를 더 큰 단위로 묶어 처리하는 전략이므로 작업기억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량을 사실상 늘리는 효과가 있다.

② O
심상은 정보를 머릿속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하는 전략이므로 개념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설명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이다.
이 표현은 정교화가 아니라 조직화의 설명이다.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 속 기존 지식과 의미 있게 연결하고, 예를 들거나 유추하거나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기억을 깊게 만드는 전략이다.
올바르게는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에 저장된 기존 정보와 의미 있게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이다"가 된다.

④ O
조직화는 정보를 구조화하는 전략이며 구체적 방법으로 개요 작성과 개념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개념도는 개념 간 관계와 주제 관련성을 도식화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존 지식과 연결"이라는 표현만 보면 정교화처럼 보이지만, 앞의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라는 문구가 조직화의 핵심 단서이다. 출제자는 조직화의 분류 기준과 정교화의 의미 연결 기능을 한 선지에 섞어 혼동을 유도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범주화, 위계화, 개요, 개념도처럼 구조를 만드는 말이 나오면 조직화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기존 지식과 연결, 예시 추가, 자기 말로 설명처럼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말이 나오면 정교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묶기는 덩어리화, 심상은 그림화, 정교화는 의미 덧붙이기, 조직화는 구조 만들기이다.

NoteBase

문 18. 성격 및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랜드(Holland)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가지 성격(흥미) 영역 중 일부는 더 발달시키고 일부는 덜 발달시킨다.

② 6각형 성격모형은 실제적 성격, 탐구적 성격, 예술적 성격, 기업가적 성격, 자기이해적 성격, 관습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직업 흥미 또한 일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전제한다.

④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는 6가지 성격(흥미) 영역 모두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홀랜드의 성격·직업흥미 이론에서 여섯 성격 유형의 구성, 성격과 환경의 관계, 진로지도의 목표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홀랜드는 직업 흥미를 성격의 표현으로 보고, 사람마다 여섯 유형이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여섯 유형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가적, 관습적 유형이며, 진로선택에서는 개인의 우세한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의 일치성이 중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은 여섯 성격·흥미 영역이 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은 더 높고 어떤 영역은 더 낮게 나타난다. 홀랜드 이론은 이러한 개인차를 전제로 우세한 유형을 파악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기이해적 성격"이다. 홀랜드의 여섯 유형 중 하나는 자기이해적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이다. 따라서 여섯 유형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가적, 관습적 성격으로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행동은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이다. 홀랜드는 행동과 직업선택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으로 설명한다. 직업 흥미가 성격과 관련된다는 취지는 맞지만, 타고난 성격이 행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6가지 성격(흥미) 영역 모두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이다. 홀랜드 이론에 기초한 진로지도는 여섯 영역을 똑같이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우세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환경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여섯 유형 명칭을 헷갈리게 만드는 선지이고, ③은 성격과 흥미의 관련성을 '타고난 성격의 결정론'으로 과장한 선지이다. ④는 진로지도의 목표를 '균형 발달'로 바꾸어 적합성 개념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홀랜드 문항은 먼저 여섯 유형이 RIASEC 구조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핵심이 '모든 영역의 균형 발달'이 아니라 '우세 유형과 환경의 일치성'인지 판단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홀랜드는 RIASEC 6유형, 사람마다 우세 유형이 다르며 진로선택의 핵심은 성격과 환경의 일치성이다.

NoteBase

문 19.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관리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② 문제해결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③ 심미적 감성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④ 의사소통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 명칭과 각 역량의 정의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의 6가지이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꾸려 가는 능력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기관리 역량의 설명과 일치한다. 자아정체성, 자신감, 삶과 진로, 자기주도성이라는 핵심어가 자기관리 역량의 정의에 그대로 대응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역량의 명칭을 '문제해결'이라고 한 표현이다. 제시된 설명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올바른 명칭은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에는 '문제해결 역량'이라는 독립 명칭이 없다.

③ O
심미적 감성 역량의 설명과 일치한다.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의 발견과 향유라는 요소가 심미적 감성 역량의 핵심이다.

④ O
의사소통 역량의 설명과 일치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설명 자체가 익숙해서 맞는 선지처럼 보이지만, 출제자는 정의가 아니라 역량의 '공식 명칭'을 바꿔 놓았다. 수험생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만 보고 넘어가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문제해결 역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핵심역량 문제는 먼저 6대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선지의 설명이 맞더라도 명칭이 바뀌어 있으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특히 '문제 해결'이 보이면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정의와 섞어 놓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의 공식 명칭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 강화가 없어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만이 학습은 아니다.
◯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지도(cognitive map)를 학습한다.
◯ 학습은 자극-반응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획득하는 것이다.

① 목적적 행동주의
② 사회적 구성주의
③ 행동수정
④ 메타인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강화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잠재학습, 인지도, 기대를 단서로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목적적 행동주의는 톨만의 이론으로, 학습을 단순한 자극-반응 결합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기대와 인지도의 형성으로 본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행동수정은 강화와 벌을 활용하여 관찰 가능한 행동을 바꾸는 접근이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알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강화가 없어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만을 학습으로 보지 않으며, 인지도와 기대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와 일치한다. ② X: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문화적 맥락을 통한 지식 구성이다. 틀린 표현은 강화 없음, 인지도, 기대를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구성주의는 협력적 의미 구성과 비계 설정으로 설명된다. ③ X: 행동수정은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와 강화 원리를 활용하는 입장이다. 틀린 표현은 인지도와 기대를 행동수정의 핵심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행동수정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접근이다. ④ X: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와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틀린 표현은 잠재학습과 인지도를 메타인지와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메타인지는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행동주의라는 말 때문에 ③ 행동수정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강화가 없어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잠재학습, 인지도, 기대이다.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스키너식 행동수정보다 톨만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화 없이 학습, 인지도, 기대, 잠재학습이 함께 제시되면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로 판단한다. 반대로 강화로 행동을 바꾼다는 표현이면 행동수정,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적 구성은 사회적 구성주의,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조절하면 메타인지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톨만 = 잠재학습 · 인지도 · 기대 = 목적적 행동주의이다.

NoteBase